

36년만의 FIFA U-20 월드컵 4강 기적을 창조한 정정용호의 '숨은 영웅'은 골키퍼 이광연(오른쪽 2번째·1번)이다. 9일(한국시간) 폴란드 비엘스코 비아와에서 끝난 세네갈과 8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무수한 선방쇼를 펼쳤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빛같은 반응속도…절망의 순간 '뒤집기 쇼'

'거미손' 이광연 스토리

두 골 뒤진 승부차기 상황서 역전극
골키퍼로는 작은 184cm 신장 불구
방어능력·빌드업 전개 등 두루 능해


GK 이광연

연장전까지 세 골을 주고받으며 맞은 운명의 11m 러시안 룰렛. 스코어 2-2에서 세네갈의 4번째 키커로 나선 디아 은디아예의 슛이 골키퍼에게 가로막혔다. 한국의 마지막 키커 오세훈(20·아산 무궁화)이 골네트를 출렁였고, 극심한 부담에 짓눌린 상대 5번째 주자 카뱅 디아뉴의 킥은 허공을 갈랐다.

대한민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36년 만의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4강에 다시 오른 감동의 순간. 그 중심에 '슈퍼 골리' 이광연(20·강원FC)이 있었다.

U-20 대표팀은 1,2번 키커의 연이은 실축으로 불안하게 승부차기를 출발했지만 120분 동안 동물적인 감각을 뽐내며 숱한 선방 쇼를 펼친 이광연의 존재감은 세네갈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초반 흐름이 중요한 승부차기에서 내리 두 골을 놓치고 승리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다.

신장 184cm로 골키퍼로는 결코 큰 체격이 아니지만 이광연의 퍼포먼스는 대회 내내 빛을 발했다. 포르투갈~남아공~아르헨티나와 자웅을 겨룬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한 동안 한국은 2실점에 머물렀다.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의 16강전에서도 무실점으로 묶어 짜릿한 1-0 승리를 일궜다.

세네갈전은 세 골을 허용했으나 중요한 고비에서 온몸을 던져 위기를 차단했다. 특히 후반 29분 이브라히미 니아네의 페널티킥(PK)을 막은 장면은 압권이었다. 비록 이광연이 먼저 상대의 킥 이전에 움직인 것으로 VAR(비디오판독)에서 드러나 주심이 다시 킥을 선언했고 실점을 내줬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U-20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정용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주전 수문장을 결정하는 작업이었다. 포지션 경쟁자 최민수(19·함부르크SV), 박지민(19·수원삼성)의 잠재력과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러나 정 감독의 최종 선택은 천부적인 방어 능력과 반응속도, 빌드업 전개에 두루 능한 이광연이었다. 정정용호가 출범한 2017년부터 그는 꾸준하게 소집됐고,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끝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본선을 기점으로 주전으로 도약했다. 이광연은 대회를 앞두고 "0점대 방어율을 달성하고 싶다. 우린 무조건 우승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다부진 각오를 전했는데, 꿈같은 목표가 거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VAR, 여전히 뜨거운 감자? 한국-세네갈전이 모범사례

정확한 판정으로 명승부 품격 높여

축구에서 비디오판독을 위해 활용하는 VAR(VIDEO Assistant Referee·비디오부심) 시스템. 이를 놓고 여전히 국제축구계에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한국-세네갈전에서의 VAR 활용은 모범사례로 남을 만큼 정확했다.

한국이 0-1로 뒤진 후반 14분. 공격 중이던 한국의 선수가 넘어졌고, 주심은 VAR을 실시했다. 공격에 가담한 선수를 밀고 나오는 세네갈 선수의 영상이 포착됐다. 주심은 직접 화면을 확인한 뒤 페널티 킥을 선언했고 한국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다.

후반 27분 또 한 번의 VAR 리뷰가 이뤄졌다. 한국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 여부를 판독하기 위함이었다. 이 또한 파울로 판독이 됐다. 세네갈은 페널티 킥을 얻었다. 곧바로 이어진 장면에서 다시 한 번 VAR이 위력을 떨쳤다. 한국 골키퍼 이광연(20·강원FC)이 선방했지만 VAR을 통해 키커가 볼을 차기 이전에 골키퍼가 먼저 움직였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광연은 옐로카드를 받았다. 다시 페널티 킥을 찬 세네갈이 2-1로 앞섰다.

후반 44분 세네갈의 추가골이 공격수의 핸드볼 파울로 취소되는 등 VAR이 자주 가동됐지만 불이익을 당한 팀은 없었다. 그 위력은 승부차기에서도 계속됐다. 오세훈(20·아산 무궁화)은 2-2 동점에서 5번째 키커로 나섰지만 세네갈 골키퍼에게 막혔다. 그러나 주심은 다시 찰 것을 선언하며 세네갈 골키퍼에게 옐로카드를 줬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오세훈은 2번 실수하지 않았고, 치열했던 승부는 한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4강신화 이끈 정정용 감독

"원 팀이 우리의 최대강점 이제 선수들의 약속 도전"


정정용 감독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폴란드에서 36년 만에 4강 신화를 다시 일궜다.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세네갈과 기나긴 살얼음판 8강 승부에서 승리를 쟁취한 순간, 잠시도 벤치에 앉지 못한 채 제자들을 독려하던 정정용 감독(50)은 그제야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벅찬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 등 쟁쟁한 강호들과 같은 조에 묶였을 때 많은 이들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정 감독의 가슴은 뜨겁게 끓었다. 대회를 앞두고 그는 "개인적으로 1983년 멕시코 대회에서 달성한 4강을 바라본다. 한계까지 가보겠다"고 했고, 결국 U-20 대표팀은 약속을 지켰다. 2017년부터 어린 태극전사들을 조련한 고독한 승부사는 빼어난 용병술과 팔색조 전략으로 또 다른 기적을 창조했다. 경기 도중 스리백과 포백을 자유자재로 오가고 주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전술로 대처하면서 상대를 괴롭혔다.

세네갈과 결전을 준비하며 "이번에 이기면 두 경기(결승전 혹은 3·4위 결정전, 4강전)를 더 뛸 수 있다"고 짧고 굵은 메시지를 던진 정 감독은 경기 후 "스태프와 선수단의 하나됨이 우리의 힘"이라며 "우리는 쉽게지지 않는다. 이제 선수들의 약속(우승)을 지키려 한다. 끝까지 도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장현 기자

U-20월드컵 한국-세네갈전 기록

한국	구분	세네갈
3	골	3
2	도움	2
13	슛	18
5	유효 슛	7
11	파울	25
4	코너킥	9
0	오프사이드	1
1(0)	경고(퇴장)	5(0)
50%	볼 점유율	50%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